

TV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1

Table listing EBS1 programs with times and titles, including 'EBSe 생활영어', '토코소 부모',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with times and titles, including '올림포스', '고교 Basic Grammar', etc.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with times and titles, including '2015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7일(음 1월 27일 壬辰)

Table of daily horoscopes for the 17th of March,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잡은 연예계 사건사고 우리사회 단면 반영

서세원 폭행·김성민 마약·이태임 욕설 등 파문 치열한 경쟁 스트레스... 일반인과 다름없어 일거수일투족 조명 받는 만큼 관리 철저해야



서세원

김성민

연초부터 각종 스캔들로 시끌시끌하던 연예계가 봄바람이 불어오는 3월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지는 추문들로 바람 잘 날이 없다.

화려하게만 보이는 연예계의 이면에 놓인 어두운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대중의 관심은 집중되고, 인터넷 세상은 요동친다.

◇가정폭력·이혼·자살=지난 10일 쇼트북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 11일에는 드라마 제작자 송병준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며 관심을 모았다.

지난 12일에는 개그맨 서세원의 부인 서정희가 32년의 결혼 생활이 '포로 생활' 같았다고 폭로하며,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서세원-서정희 부부는 지난해 서세원의 서정희 폭행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20여 년 연예계 잉꼬부부를 대표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불화, 이혼은 결코 연예계만의 일이 아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1월 내놓은 '광복 70년, 삶의 질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자살 등 한국의 가족·공동체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았다.

'콘서트 7080' 500회 특집 '송골매 헌정 공연'

성시경·장기하·효린 등 출연...21일 방영



중장년층이 즐기는 음악 프로그램인 KBS 1TV '콘서트 7080'이 500회를 맞았다.

16일 KBS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1월 6일 처음 전파를 탄 '콘서트 7080'은 오는 21일 밤 12시에 500회 특집을 방송한다.

MC 배철수(사진)가 활동했던 그룹 송골매 헌정 공연을 위해 신대철(기타)과 신석철(드럼), 강호정(키보드)이 드림 밴드를 결성했고 가수 성시경과 장기하, 효린이 보컬을 맡았다.

MC 배철수(사진)가 활동했던 그룹 송골매 헌정 공연을 위해 신대철(기타)과 신석철(드럼), 강호정(키보드)이 드림 밴드를 결성했고 가수 성시경과 장기하, 효린이 보컬을 맡았다.

시청률 부진...SBS 24년만에 9시 주말극 폐지

'아빠를 부탁해' '웃찾사' 방송



SBS가 시청률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던 밤 9시대 주말극을 폐지했다.

SBS는 지난 15일 종영한 '똥다 패밀리'<사진>를 끝으로 창사 이래 24년간 '주말 8뉴스'에 이어 편성해온 주말극을 폐지했다.

SBS는 예초 '똥다 패밀리'에 이어 '이혼변호사는 연예중'까지 방송한 후 오는 5월에 밤 9시대 주말극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9시에 이어 10시대 주말극 '내 마음 반짝반짝'까지 극심한 부진을 보이자 개편을 앞당겼다.

지난 1월3일 시작한 '똥다 패밀리'는 4.3%(이하 닐슨코리아)의 시청률로 출발해 15일 2.3%로 막을 내렸다. 20회 평균 시청률은 3.2%. 지상파 주말드라마로서는 참담한 수준의 성적이다.

이날 다른 주말극의 시청률은 MBC TV '여왕의 꽃' 16.8%, KBS 2TV '파랑새의 집' 25.7%, KBS 1TV '징비록' 10.7%로 각각 집계됐다.

SBS는 광고시장 침체 속에서 드라마에 비해 제작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능을 대신 편성하기로 했다.